202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5년 1월 7일(화) 14:00

2. 장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위원

■ **참석위원**: 정석재 기획처장(위원장)

장홍제 화학과 교수

최혜정 기획예산차장

조석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하지오 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오세빈 일반대학원 화학과

배성봉 공인회계사

■ 배석위원: 신문철 국제교류차장

4. 회의안건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상견례 및 위원장 선출

나. 202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5. 회의내용

- 재적 위원 7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2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 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이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배성봉 위원 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정석재 기획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다.
- 202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를 시작하다.

■ 위원장

·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인상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은 2024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전학년도 위원들에게도 보고 하였음.

등록금 인상 문제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학년도 첫 회의에 앞서 간담회 진행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등록금 인상분 활용계획 등을 설명함.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간서명		2182129	2 hrs

-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인상되지 못함에 따라 우수 교직원 확보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학생경비 증액 및 학생 복지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시급한 상황임.
 - 또한 현재 본교의 등록금 수준은 서울 소재 타 대학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공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학임을 감안하였을 때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임.
- 등록금 의존율의 경우 2023학년도 결산 기준으로 약 62.3%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2024학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지원사업 수주 성과가 좋아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음.
-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어 학생 활동이나 교수 연구가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며, 2025학년도에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함.
- 2025학년도 학부(내국인)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등록금 인상률 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평균 등록금과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에 관하여 설명함.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등록금 적용 기준에 따른 인상률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등록금 책정 기준(안)으로 공학계열 등록금 적용(안)과 평균 등록금 적용(안)을 제안함.
- 등록금 인상분은 국가장학금 II유형 교부금 보전과 학부 교육 및 복지시설 개선, 우수 교원 확보와 교직원 급여 인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함.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등록금 책정 방식에 따른 등록금 인상분 규모를 부연하며 활용 안 비율을 제안함.
- 2025학년도 학부(외국인) 등록금 책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제교류차장이 배석하다.

■ 위원장

- 학부(외국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비용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함.
- 서울소재 외국인 학부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타 대학 대비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간 등록금 차액 비율이 크지 않으며 등록금 수준 또한 높지 않음을 설명함.
- 내국인과 외국인 학부생의 등록금 인상률을 동일하게 책정하자는 대외국제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학년도 학부(외국인) 인상안은 학부(내국인) 등록금과 동일한 인상율을 제안하고 회의에 배석한 국제교류차장의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함.

■ 배석위원(국제교류차장)

• 본교는 2017년부터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하여 계속 동결해왔으며 2024학년도에 처음으로 인상하였음을 설명함.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간서명		を182129	3 Miss

■ 배석위원(국제교류차장)

• 비슷한 수준의 타 대학 대비 등록금이 현저히 낮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등록금 인상에 동의하나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률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경우 외국인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 동일한 인상률을 제안함.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활용방안처럼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함을 개진함.

외국인 학생 관련 프로그램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진행되더라도 이탈률이 높은 점을 우려하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배석위원(국제교류차장)

•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에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인상분의 상당부분을 해당 장려금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2024학년도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할 당시 인상에 관한 사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과 10%라는 큰 비율로 인상된 점, 등록금은 인상되었지만 장학금은 오히려 감소한 점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올해는 등록금 인상에 앞서 장학금 확대 및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개진함.
-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중도 이탈률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앞으로는 외국인 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선행되어야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유학생회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등록금 인상분에 대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가시적이고 공감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개진함.

■ 위원(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대외국제처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답변이 어떠하였는지 질의함.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간서명		之132127	3 M32

■ 배석위원(국제교류차장)

-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계획하고 학생들에게 공 지하였으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음을 설명함.
 - 이후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재공지를 진행하였으며 등록금 인상분은 한국어 능력 향상 장려금을 크게 증액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였음을 설명함.
 - 그 외에 취업 캠프와 특강, 축제지원 등 유학생회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설명함.
- 위원장이 추가 질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석위원 퇴장하다.

■ 위원장

-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왔으며 입시 홍보 및 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설명함.
- 대학원의 경우 연구조교장학금을 비롯한 장학금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과 타대학의 대학원 등록금 수준 및 인상률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 원 등록금 3% 인상(안)을 제안하고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함.
-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록금 책 정(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다.
- 2025학년도 학부(내국인)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학생 위원 측 의견을 개진하다.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등록금 인상분 활용 방향으로 학교 측이 제시한 국가장학금Ⅱ유형 보전, 학생 교육 및 복지시설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직원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한 학생위원 측 의견을 제안함.
- 먼저, 등록금 인상분 45% 정도를 활용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부금을 전부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함.
- 학생 교육 및 복지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학교가 학생회에 권한을 일임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복지 사업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이를 위하여 교무위원 및 학생위원 성원의 학생사업계획에 관한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개진함.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직원 급여 인상의 경우, 학생 등록금 인상분으로 충원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현재 대학의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등록금 인상분에 반영할 사안으로 사료됨.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간서명		2182127	3 mm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대학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과 등록금을 제외한 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교직원의 승진 적체 및 급여 문제는 등록금 동결이 아닌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데서 기인하였다고 사료됨.
- 등록금 의존율과 대학의 주요 운영 수입의 출처를 고려할 때 학생 중심의 가시성 있는 복지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인의 법정부담금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계획이 학생들에게 공유되어야 함을 개진함.
- 학생 교육 및 복지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활용 방안은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과 TF 구성 시 학교에 요청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안함.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건물별 개선 요구사항의 경우, 리모델링 등 노후화 건물 개선에 대한 사항과 학습공간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임을 설명함.

■ 위원장

• 등록금 인상분 활용에 관한 학생위원 측 제안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TR 유형 교부금은 교내장학금으로 전부 보전할 예정임을 설명함.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학교 측 제안과 달리 등록금 인상분의 35%를 학생복지사업 예산으로, 20%를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직원 급여 인상을 위한 예산으로 제안하며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의 복지 요구안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학생 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 비율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개진함.
- 학생 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은 단계적 편성이 아닌 2025학년도 학생처 예산안에 모두 편성할 것을 요청하며, 학생회 주도로 복지 사업 진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측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함.

■ 위원장

• 2025학년도 학생처 예산에 등록금 인상분을 일시에 전액 편성하는 것은 학교의 예산 관리 및 통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재고해야 할 부분이며, 차후 TF를 통하여 요구사 항이 확정되면 학생 측이 제안한 등록금 인상분 활용 비율대로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

■ 위원(기획예산차장)

• 해당 부분은 운영 방식의 차이일 뿐, 활용계획 및 목적에 대한 양측 의견은 동일하므로 TF를 통하여 요구사항이 확정되면 교내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함.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간서명		を1を212分	3 432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등록금 인상분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된다는 가시성 측면에서 원래 학생처에 배정되던 예산 규모에 등록금 인상분이 더해진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개진함.

■ 위원(기획예산차장)

• 업무별 교내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학생처에 등록금 인상분 전액이 배정되는 것은 어려우며, 도출된 학생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교에 요구하면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각 담당 부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을 설명함.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학교의 행정적인 절차는 따르되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예산은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TF가 구성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생처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었 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함.
- 학생처에 배정된 축제 관련 예산을 배 이상 확보해주길 요청하며, 예산 규모를 학생회 가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함.

■ 위원장

-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면 등록금 인상분 35% 범위 내에서 축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함.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인 법정부담금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다.

■ 위원장

 법정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법인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구체적인 법정부담금 확보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위원장

• 현재 법인에서 운영 중인 수익사업체 수입과 발전기금 수입을 활용하여 법정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위원(공인회계사)

• 현재 학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법정부담금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등록금 인상분 활용비율에 있어 학교가 학생 측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간서명		を132127	2 hr

- 위원 전원 동의로 등록금 인상분 활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 심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국가장학금피유형 교부금 전부 보전(인상분의 45%)
 - 학생 복지 사업 예산(인상분의 35%)
 - 신임교원 채용 및 교직원 급여 인상(인상분의 20%)
- 위원장은 회의 안건인 2025학년도 학부(내국인)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위원(공인회계사)

• 교육부 권고사항(자율전공학부 등록금을 평균등록금으로 책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패널티가 없다면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입학 후 계열/학과 상관없이 선택 가능함을 고려하여 공학계열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타 대학 사례를 고려하여 등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4.85% 인상안인 공학계열 등록금 적용을 제안함.

■ 위원(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 등록금 4%대 인상안과 5%대 인상안은 시각적으로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 위원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공학계열 등록금 적용을 제안함.

■ 위원(일반대학원)

-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공학계열 등록금 적용을 제안함.
- 위원장은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등록금 공학계열 등록금 적용 및 2025학년도 학부(내국 인) 등록금 4.85% 인상을 다시 한 번 위원들에게 공지하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다.
- 위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국가장학금Ⅲ유형 보전을 위한 교내장학금 지급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위원장

- 교내장학금 유형(학비감면/성적장학/봉사장학 등) 중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학생처 와 논의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함.
- 위원(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향후 학생 복지 사업을 위해 구성될 TF팀 구성을 교직원 4명, 학생 4명으로 할 것으로 제안하고 위원장이 해당 의견에 동의하다.
- 위원장은 2025학년도 학부(외국인) 등록금 4.85% 인상,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록금 3% 인상을 제안하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다.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간서명		2122129	3 hz

6. 의결사항

- 가. 2025학년도 학부(내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4.85% 인상을 의결하다.
- 나. 2025학년도 학부(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4.85% 인상을 의결하다.
- 다. 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내국인 및 외국인)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 3% 인상을 의결하다.

7. 폐회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간서명		を132129	3 hz

202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5년 1월 7일(화) 14:00

2. 장소 : 광운대학교 화도관 대회의실(202-1호)

이상의 회의내용을 확인함

위 원	장	기획처장	정석재 (인/서명)
위	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장 홍 제 (현기서명)
위	원	공인회계사	배성봉 전체되
위	원	기획예산차장	최 혜 정 /위사/위계(11)
위	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조 석 현
위	원	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하지오 (인/세명)
위	원	일반대학원 화학과	오세빈 (원)(1)